



5년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음 4월 2일)

제35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코스트코 익산 입점 가시화

전북자치도-익산시
코스트코코리아와 협약

호남권으로는 '최초' 총 800억원 사업비 투입 왕궁면 일원에 매장 조성 총 200여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보호 방안으로 지역민 우선채용 등 추진



8일 익산시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매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코리아가 호남권 최초로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입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8일 익산시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매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코스트코 홈세일'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 세계에 870여 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코스트코코리아는 현재 전국에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18개의 코스트코 매장을 운영중이다.

㈜코스트코코리아는 호남권 첫 신규 투자에 나선 것으로, 익산시 왕궁면 일원 약 4만㎡부지에 총 800억원

을 투자해 매장을 조성하고, 총 200여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민들은 호남권에 코스트코 매장의 부재로 대전, 세종 등 다른 지역의 매장을 방문해 이용했으나, 이번 입점을 통해 도내에서 좀 더 편리하게 국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근 지역 유동인구 유입으로 전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소비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와 익산시에서는 ㈜코스트코코리아와 함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방안으로 지역민 우선채용, 지역 우수제품 입점, 지역사회 공헌 등의 내용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익산시민이 바

라던 코스트코 입점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지역 상생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무엇보다 익산시·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조속한 개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호남권 최초로 ㈜코스트코코리아가 익산에 입점하게 돼 전북자치도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지역 소비 유입,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코스트코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스트코 익산점이 운영되면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유동 인구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공에서 개점까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외교단은 8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 완벽하게 준비할 것”

전북자치도 외교단, 대회 운영위원회서 추진계획 발표

공공의교화동차 중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전북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준비상황 등을 운영위원들과 공유하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특별히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교단은 8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한인 경제인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은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해 관개부서, 출연 기관 등과 함께 20여 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다.

기업 전시간 구축과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투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와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9일 개최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미비점들을 보완해 5월 제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무회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참여하는 정기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실무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위해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전북자치도에서 열리는 대회는 케이(K)-컬처의 맛과 멋, 창의와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운영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 모두가 정성을 다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맞이할 것이다"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전주시 상생 이벤트’...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6월 14~23일 개최... 격파 · 품새 · 생활체육 경연
개막 행사서 브리튼즈 갓 탤런트 결선 무대 선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6월 14~23일, 제2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 14~16일 격파 부문, 20~22일까지 품새 부문, 23일은 생활체육 경연 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접수는 격파와 품새대회(승인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승인대회에서 1년 만에 KTA 전국대회 승격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한 바 있는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격파 종목은 최초로 인준 받는다.

이번 대회를 총괄하는 태권도학과 이숙경 학과장은 "태권도 대회가 많

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겨루는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이벤트로 무주 태권도원과 전주 한옥마을 등과 함께하는 관광코스로 만들어졌다"며 "대회 기간 5,000여 명

이 참여하는 대회로 전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전북의 '맛과 멋'의 대표 고장인 전주 지역 관광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태권도대회 개막식 행사에서는 브리튼즈 갓 탤런트 결선 무대를 그대로 참가자 앞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춘향제** 남원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